



부산덕문중학교

# 박재문 교사

지난 해 한국천문연구원과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가 주최한 제1회 아마추어천문인 공로상 교사 부문을 수상한 박재문 씨는 현재 부산시 가덕도에 위치한 부산덕문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부산이라지만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외딴 섬 마을에서 박재문 씨를 만났다.

올해로 본격적인 별 생활을 시작한 지 10여 년쯤 되었다는 박재문 씨. 어렸을 적에도 별에 관심이 많았지만 잘 알지 못했고, 주변에 접할 정보도 별로 없어서 깊이 빠져들지는 못했었다고 한다.

"1990년에 우주소년단 지도 교사를 하면서 선생님끼리 조직을 나누었어요. 그 때 제게 주어진 임무가 별자리 교육이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었죠. 모르면 못 가르치니 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3년간은 별자리 전문가들 옆에서 귀동냥을 했습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나요. 그렇게 귀동냥하면서 책보며 공부하고 나니 그때부터 혼자 밤하늘을 봐도 별자리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후 부산 지역 중학생들 교육을 시작했죠. 덩스카이 쪽도 관심을 가졌지만 접근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년을 별자리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활동을 시작한다.

"지금은 고인이신 전 허문도 회장님, 박석재 원장님, 천문우주기획의 이태형 사장님과 함께 아마추어천문학회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뜻을 갖고 모였습니다. 허문도 회장님이 4대 아마추어천문학회

회장을 맡으시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부산 지역 부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별을 보는 데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 별 생활 10년

박재문 씨는 아마추어천문학회의 조직을 관리, 홍보하고, 행사 때면 진행을 도맡았다. 90년대 후반만 해도 중소도시 별의 축제 등 아마추어천문학회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별 행사가 열렸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신없이 바쁘고 힘도 들었지만 정말 보람도 큰 시기였거든요. 하늘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매년 큼지막한 혜성이 나타나 큰 볼거리를 제공했었으니까요."

지금도 여러 행사를 구상하고 진행 방안을 찾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는데, 바람이라면 그런 행사의 한 프로그램으로 별이 꼭 들어갔으면 하는 것



본격적으로 별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째라는 부산덕문중학교 교사 박재문 씨.



